



김대중 전 대통령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단독 인터뷰

“DJ와 함께 통일을!”

지난 7월 2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도서관’은 부산에서 온 30여명의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이 내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회의원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함께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은 자리를 가득 매운 청소년기자단에게 “정치하는 동안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자들이었는데...”라고 말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 주었고,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리/임다숨 기자·강한애 기자·윤효정 기자·오윤정 기자·임성하 기자·강민경 기자·최철훈 기자·유정화 기자



김대중 :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나를 취재하러 온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청소년인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1300년 이래 통일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분단 상황은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과 같이 당연히 이루어내야 하는 민족의 과제입니다. 언제까지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5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정보화, 문화 부흥을 일으켜 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열성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높은 지적수준과 주체적인 민주주의의 힘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그 힘을 토대로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친다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합리적이고
머리 좋은 사람
이야기가 통해



사진: 통일뉴스

6.15로 바뀐 세상과 공동선언 의미

6.15 공동선언은
상부상조하는 남북소통
가능케 해

기자단 6.15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민족끼리의 작지만 큰 의사소통의 장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남과 북의 교류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50여년간 200여명에 불과했던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객 수가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만 18,000여 명, 금강산 관광객은 200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서 북측의 값 싸고 질 좋은 노동력 자원과 남측의 풍부한 자본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이 서로에게 상생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측은 의사소통이 되는 우리의 땅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하게 돼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에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북측은 새로운 일자리를 생겨 자본이 돌게 되니 상부상조가 아니겠습니까.

기자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셨는데요. 가까이에서 만나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김대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이 유연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합리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치 있는 답변과 회의를 주도해나가는 모습에서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해온 사람이라는 것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논의 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한 나라를 지배해온 사람으로서 당과 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고래 혹은 난잡한 사람이라는 항간의 때로는 얘기와는 달리 제가 만나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햇볕정책

남북대립을 평화로
마음의 장벽 허무는
승리의 정책



사진: 통일뉴스

이건준 기자(반여고 2)

기자단 김 전 대통령께서 재임하실 당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극적인 변화는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중 일전에 하버드대학교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말했듯이 햇볕정책은 남북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책입니다. 다시는 북측과 적이 되어선 안 되며,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정책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퍼주기 식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도운 것이기에 누가 더 찾고 말고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도 서로 돕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더 도와주어야 합니다. 통일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반도가 아닌 섬으로 존재하며, 그만큼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육지를 통해 다닐 수도 있고, 북측의 풍부한 자원을 쓸 수 있고, 관광산업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통일문제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넓지만 깊은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넓은 눈으로 봤을 때 북측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햇볕정책으로 서로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적으로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이러는 공동승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정권의 대북정책

현실성 있는 선택은
화해와 협력뿐
햇볕정책으로 귀결 될 것



사진: 통일뉴스

정유진 기자(경기도 병점고 2)

기자단 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통일부 존재 문제를 두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많은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통일정책을 펴나가면 좋을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북측과 결국은 화해 협력해서 국제 사회에 잘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욕의 한인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연설을 전해 들었는데 ‘햇볕정책’이라고만 안했지 내용은 그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실용적인 정책들을 입안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현실에 따라 대책을 세울 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에서 햇볕정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계실 겁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조차 직접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측 정부 역시 현실성 있는 선택은 화해와 협력 뿐 일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여 북측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비료나 식량 등 약속한 물자지원을 지키는 것으로 호의를 보여주고 다시 관계 개선에 나서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화해와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피격사건

망원경과 현미경 시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사진: 통일뉴스

옥다혜 기자(부산외고 1)

기자단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신 분으로서 얼마 전 금강산에서 남북 관광객이 파살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앞서 이야기했지만 남북문제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두 눈이 필요합니다.

한 손에 쥔 망원경을 통해 큰 앞날을 내다보는 동시에 다른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얼마 전 벌어진 금강산 피격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관광객의 등에 총을 쏘았다’면 분명 북측에서 잘못된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북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이번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필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남북간에 이와 비슷한 다른 문제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유언한 사고를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좌우명

“화해와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
마음에 새겨주길



사진: 통일뉴스

이번 인터뷰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위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만한 좌우명’을 하나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의 마지막 질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해와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청소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통일뉴스